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목포교도소의 꽃 최우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예전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재소자 프로그램(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웰다잉 웰리빙 등)실시를 위해 목포교도소를 드나들면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교도소라는 곳. 결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음침스런 별세계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목포교도소 최우진 교도관이다. 이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개선이 많이 됐다.

물론 다른 교도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드나들면서 유난히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 교도관이었던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재소자들은 수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분노 조절 장애, 교도소까지 오게 한

자들에 대한 원망과 보복 심리 등 다양한 부정적 생각들이 가슴 속에서 파리를 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는 이런 재소자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뛰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약간의 틈만 나도 재소자들과의 상담에 열을 올렸다. 참 교도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서 팔자도 점심시간 등 쉬는 틈을 이용해 최 교도관과 대화를 나눠왔다. 역시 사명감이 남달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용자들의 행위만 봤을 때에는 참으로 미운사람들이다. 피해자나 국민들의 감정까지 더하면 더더욱 미운사람들이다. 교도관들이 미운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다보면 그들 역시도 불편한 감정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거울 벽을 사이에 둔 관계라고도 할 수 있

다. 이처럼 교도관과 수용자와의 관계는 좁혀짐 회복되기 힘든 관계다. 때문에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교정교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이해하고 적합한 도움을 주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관련 자격증만 해도 범죄심리사전문가(범죄심리사1급), 중독심리사전문가(중독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사회복지사2급, 임상심리사1급, 중독재활상담사,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수두룩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자격증 획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단없이 재소자들의 재범방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는 사실이다.

교정공무원을 14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최우진 교도관. 교도관무도대회 3회 입상, 마그

미상(마약치료 프로그램 진행으로 교정본부에서 최초 수상), 법무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다. 자신을 거쳐 간 재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재소자들에게 내재된 상처 받은 아이들을 잘 치료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자립생활은 이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내일도 쉽지가 않다. 마치 부레 없는 상어처럼. 숙명이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수시로 상담을 해준다. 따뜻한 형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가능하면 재소자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준다.

사실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재소자들의 삶.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들에게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만날 때마다 칭찬의 말을 전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소장의 교정철학이 인간존중이다. 그리고 동료 교도관 모두가 나보다 훨씬 더 휴머니즘적이다.”라면서 그 공을 소장과 동료들에게 돌렸다.

이런 그를 어찌 목포교도소의 꽃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社說

체불임금 제재 강화해야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5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 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사건) 자료 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일체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노동자는 35만1천531명, 근로감독 사건 피해 노동자는 21만 8천062명으로 전체 피해 노동자 수는 56만9천59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신고사건 1조6천472억원, 근로감독 사건 972억원 등 총 1조7천445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5%가량, 2015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사건 기준으로 업종별 임금체불액 규모는 제조업(6천449억원), 건설업(2천926억

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187억원) 등 순이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비중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높았고, 매년 70~80% 비율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되거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통계 산출 방식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징벌적 부가금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된 노동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자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악덕업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5%가량, 2015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사건 기준으로 업종별 임금체불액 규모는 제조업(6천449억원), 건설업(2천926억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야외활동시 골절 주의 생활화 해야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가족 단위 나들이도 잦아지면서 넘어져 다치거나 부딪치는 등의 사고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시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 서 신체를 부딪친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활동기 이전의 아이는 여러 종류의 불안전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눈에 띄게 부어 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다치지 않은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부위를 아파하거나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방사선 촬영을 해보아야 한다.

일단 팔, 다리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상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고 다친 부위의 붓을 조심스럽게 벗긴 후 확인한 손상부위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고정할 때에는 반지나, 시

계 등을 제거하고 골절부위의 윗관절과 아래관절을 모두 고정해줘야 움직임에 의한 이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병원으로 이동할 때까지 손상부위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 놓으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주변 근육조직이나 혈관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상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만약 뼈끝이 튀어나온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튀어나온 뼈끝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상처를 멸균된 거즈나 깨끗한 수

건, 손수건 등으로 덮고 지혈시켜주며 가능하면 다친 쪽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도록 한다. 골절의 경우에는 가급적 덜 움직이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 손상을 막는 지름길이므로 부목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골절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 골절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의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중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